전용 85㎡ 아파트 건축비 300만원 오른다

내달부터 분양가 상한 금액 적용 기준

건자재값 급등…기본 건축비 2% 상향

오는 3월1일부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전용면적 85㎡의 경우 300만원 가량 오른다. 최근 철근 등 자재가격 급등과 노무비 상승 등의 여파로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2% 이상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계는 건자재값 급등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트를 포함, 건축비 상승압박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건축비 상향률의 반영폭 현실화와 반영시기 단축, 분양가상한제 재검토 등을 요청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철근 등 건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2.16%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금액은 공급면적 112㎡(전용면적 85㎡)를 기준으로 313만원 가량 상승한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9만2천400원 가량 높아지는 셈이다.

이처럼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한 것은 최근 6개월간 전국의 철근가격이 10.3%나 뛰었고, 노무비도 2.65%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광주·전남의 경우 2월 현재 건자재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철근값이 1년 전보다 40.4%(18만7천원)나 오른 데다 철근 품귀현상도 날로 심화되고 있다. 또 레미콘 및 시멘트 가격 등도 줄줄이 가격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업계가 받는 건축비 상승압박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가 상한액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건축가산비로 구성되며 이 중 기본형건축비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기본형건축비는 오는 3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철근이나 레미콘 등 건자재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 후 상승하는 건축비용은 하반기에나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건축비 상승압력은 지방 건설업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주택시장 침체로 인해 미분양물량이 대책없이 쌓인 가운데 건자재값까지 급등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을 보듯 뻔해졌기 때문이다.

또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대거 조기 분양에 나선 것도 자재난 심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초부터 아파트 공사가 대거 몰려 있는 만큼 주요 건자재 급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초 분양에 나선 업체들의 경우 건축비 상승과 자재난을 함께 겪을 공산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민간업체 공공택지 개발 허용

2010년부터 … 공공기관과 경쟁체제로

2010년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공공택지 개발이 허용돼 공공기관과의 경쟁에서 이길 경우 민간이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2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민간에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앞으로 3단계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는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이다. 지금은 특정지역의 택지 조성사업을 정부에 직접 제안한 공공기관이 개발권도 갖게 되지만 1단계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공공기관간 경쟁에서 이겨야만 개발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예컨대 한국토지공사가 제안한 택지조성사업의 개발권을 대한주택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이 가질 수도 있게 된다.

2단계로는 민간컨소시엄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단계는 2010년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민간건설업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공기관보다 낮은 가격에 입찰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

친환경 가방 멋있지? 26일 서울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레스포색(LeSportsac) 2008 봄, 여름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행사에 참가한 어린이와 어머니가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가방을 구경하고 있다. 이날 선보인 가죽이나 모피를 소재로 쓰지 않는 친환경 주의자 스텔라 맥카트니가 디자인 했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업체 신청 받아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올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베트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파크스탄 등이며 몽골·방글라데시·캄보디아·중국 등은 해당국과 접촉 중이다.

강영태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경우 노동부 지침에 따라 3월1일부터 기존 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정해 지역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해주는 한편, 불법체류자로의 이탈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는 15개 국가 3천5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문의 (062) 955~9966.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중기청 "우수 中企제품 홍보해 줍니다"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박춘근)은 우수한 성능과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가 부족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홍보지원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발굴하거나 추천받아 홍보해왔으며 인지도 향상과 매출증대, 거래처 확대 등 성과높은 판로지원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업들이 선호하는 매체를 중심으로 더 많은 신제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되, 지원성과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 : //gj.smba.go.kr)를 참조, 신청서와 제품소개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여수엑스포 성공 기원

카스 병맥주에 라벨 붙여 생산

오비맥주(대표이사 이호림)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여수를 비롯한 전남지역에 유통되는 카스 병맥주(500㎖)에 엑스포 성공개최 기원 라벨을 부착해 생산한다고 26일 밝혔다.

라벨에는 오비맥주가 여수세계박람회를 응원한다는 문구가 새겨질 예정이며, 모두 10만 상자를 생산해 오는 3월3일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또 식당과 슈퍼마켓 등 맥주판매처에는 엑스포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포스터〈사진〉를 별도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 포스터는 벽에 부착할 수 있는 포스터, 문에 부착하는 스티커, 전단지 등으로 제작된다.

이밖에 제품이 출시된 이후에는 여수시민과 여수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진행해 2012여수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다. 한정적으로 생산되는 이번 제품의 가격은 기존제품 가격과 동일하다.

오비맥주 마케팅팀 황인정 상무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백라벨(Back Label)을 부착한 한정제품을 생산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오비맥주는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병뚜껑 속의 컬러를 찾아라"

보해양조 잎새주 고객 성원 2억 경품 이벤트

잎새주 마시고, 현금 500만원의 행운도 잡으세요!

보해양조(대표이사 임건우)가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잎새주 경품 이벤트'를 펼친다.

'병뚜껑 속의 컬러를 찾아라'〈사진〉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행사기간 중 제품 병뚜껑 안쪽에 적힌 컬러와 메시지를 통해 즉석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잎새주 병뚜껑에 새겨진 컬러에 따라 광주·전남지역민 3천684명에게 모두 2억원 상당의 현금과 주유상품권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병뚜껑 속 컬러가 녹색인 1등 당첨자 9명에게는 현금 500만원의 행운이 주어진다.

또 주황색의 2등 50명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 보라색의 3등 125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주어진다. 빨간색인 4등 3천500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이 경품으로 지급된다.

경품 교환기간은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해 홈페이지(www.bohae.co.kr)의 '진행 중인 이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해는 지난 2007년 광주·전남시장점유율 82%대를 차지했으며, 최근 이벤트 및 광고를 통한 지역밀착마케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배터리 폭발·발화사고 휴대전화 '최다'

배터리(리튬2차전지)의 폭발·발화 등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휴대기기는 휴대전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휴대기기의 배터리 관련 안전사고는 2005년 9건, 2006년 12건, 2007년 15건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이중 휴대전화 배터리 안전사고가 28건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내비게이션 4건(10.5%), MP3 3건(7.9%), 노트북 2건(5.3%), PDA 1건(2.6%) 등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과충전 등으로 전지 내부 압력이 증가해 케이스가 부풀어지는 '부풀음'이 14건(36.8%)이었고, 배터리에 불꽃이 일거나 연기가 나면서 타는 '발화'가 9건(23.7%), 펑 소리가 나거나 파편이 튀는 '폭발'과 배터리에 심한 열이 발생하는 '고온'이 각각 6건(15.6%)씩이었다. 화상·화재 등의 우려가 큰 발화, 폭발, 고온, 파열 등의 사고 24건을 살펴보면 기기를 사용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16건(66.7%)이었 다. /연합뉴스

광주·전남경총 염홍섭 회장 재추대

염홍섭 현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 재추대돼 3년 임기의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는 26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갖고 11명의 신임 임원을 위촉했다.

신임 임원은 ▲차기회장=유희열(세화기계 회장) ▲부회장=최상준(남화토건 부회장)·최영종(남경건설 회장)·김봉길(삼각기계 회장)·고정주(나영산업 대표)·오세철(금호타이어 대표)·김보곤(디케이산업 대표) ▲이사=주경석(에스제이금속 회장)·조성은(무진기연 대표)·박화석(우성정공 대표)·김길종(현대주택관리 대표).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